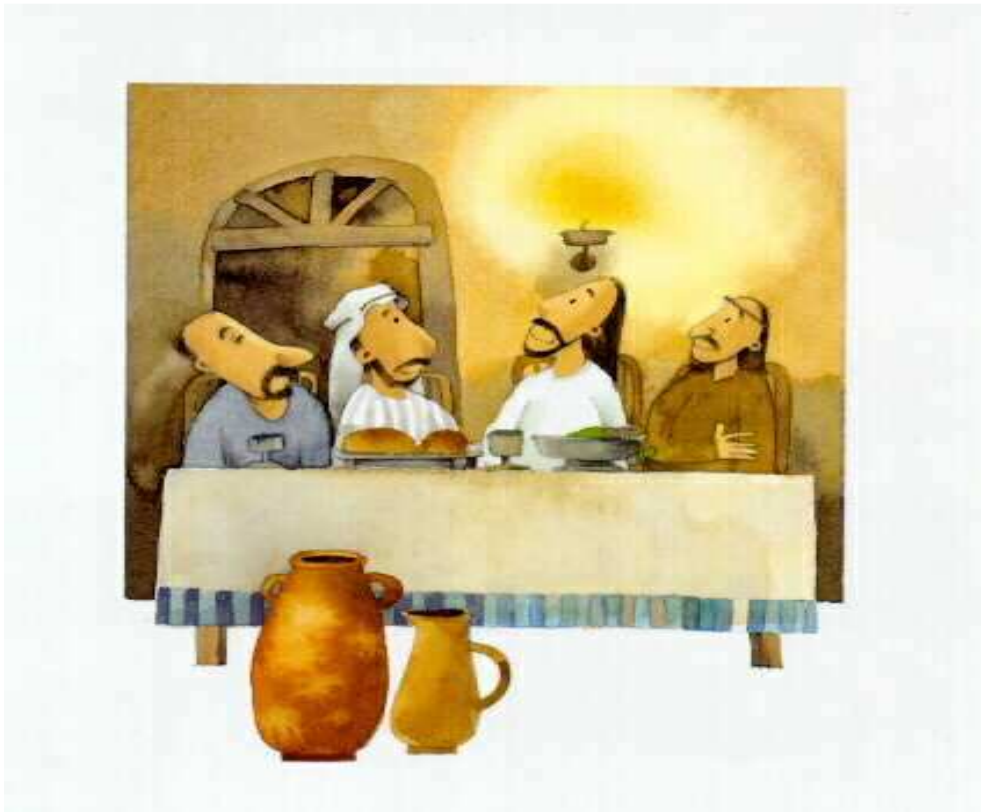


## 2012 9.02 연중 제 22 주일

제 1 독서 : 신명기 4,1-2. 6-8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는 안 된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 2 독서 : 야고보서 1,17-18. 21 ~ 22. 27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 음 : 마르코 7,1-8. 14-15. 21-23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제 2 독서에서 야고보 사도 께서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하느님으로부터 내려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1 독서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1300 년전에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세상에 좋은 것을**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그 하느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서는 두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여 주십니다. 십계명 중 첫째, 둘째, 셋째를 요약하시어 너희 하느님을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것을, 또한 네째부터 열번째까지의 계명을 요약하시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야한다고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즉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민생활에서도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관심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화답송에 나오는 시편 15 장의 말씀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 시편구절은 수도승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전에 사제 앞에서 읊었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주님 당신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이를 다시 번역하면 **“누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 갈수 있는가?.”**, **“누가 하느님의 집에 살수 있는가?”** 입니다.

**“흙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 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이 시편 구절을 되새겨 보시면서 **“무엇이 나를 하느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부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와 사제 생활을 한지도 11 년이 되었습니다. 신품을 받은 뒤로 한달에 한번씩 왔었고, 본당신부로 부임하여 9 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와서야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 이다지도 힘든 것일까?”** 하는 것 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자신은 바꾸어어도 상대방을 바뀌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공동체는 신자수가 많기때문에 봉사하는 분들 외에는 접촉할기회가 없지만 한인 공동체는신자 수가 적어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고 그래서 교우 개개인을 가깝게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10 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서당개도 3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 년전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얼마나 변하여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누구때문에 성당에 안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신부때문에 성당에 안나오신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 시도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느님께 그 분들을 맡겨 드릴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몫입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하느님께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눈을 돌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을 전혀 모르는 분들께로 우리의 신앙을 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 1 독서에서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수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 할것이다. 내가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도 안되고 빼서도 안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무엇을 보태거나 빼어서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따르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편한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끝으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봅시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 이 미사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는 안 된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4,1-2.6-8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1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6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7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8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1,17-18.21 ~-22.27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7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18 하느님께서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21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22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7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1-8.14-15.21-23

그때에 1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려왔다가, 2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3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4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돛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5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6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7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8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14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15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21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22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23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